

# 산아제한과 관련된 철학적 논의

황필호 교수의 「산아제한과 낙태와 여성해방」

‘낙태’라는 단어는 누구를 막론하고 어떤 수치스러움이 담긴 당혹감을 느끼게 할 것이다. 일종의 죄의식이 들어 있는 이 느낌을 우리들은 애써 아무렇지도 않은 듯 외면함으로써 그 ‘곤혹스러움’에서 빠져나오려고 한다. 그러나 그냥 덮어 두어 속으로 썩게할 것이 아니라, 당장은 아프더라도 병든 환부에 메스를 대어 치료를 하는게 현명한 것처럼, 낙태 문제는 그 어떤 문제보다 우선해서 터놓고 이야기 되어야만 할 일이다.

이러한 점에서, 「산아제한과 낙태와 여성해방」(종로서적)이라는 다소 긴 제목의 이 책은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하겠다.

현재의 정확한 통계는 알 수 없으나 이 책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형법 제269조와 제270조가 분명하게 낙태를 금지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1988년 현재 서울지역의 낙태가 약 60만건, 전국적으로 1백50만건에 이른다고 말하고 있다.

낙태천국이라고도 할 수 있는 한국의 현실과 세계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낙태의 실상을 여러 분야의 학자들의 논문과 함께 기독교, 가톨릭의 입장을 실어, 독자들로 하여금 깊이 생각해 볼 계기를 마련해 주는 데 이 책의 의미가 있다고 본다.

그 예로, ‘산아제한’이라 이름하지 않고 ‘가족계획’이라고 하는 것부터가 당국이 은밀히 낙태를 권장하는 게 아니냐 하는 것과, 생명탄생의 억압, 즉 탄생을 저하가 경제에 공헌을 하여 국민소득을 높이는 결과를 보이고 있는 씩씩한 한국의 현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이 책을 읽으면서 산아 제한과 낙태가 막연히 감정적 찬반 문제가 아니라 실로

높은 철학적 사고와 객관적 사고를 요하는 문제임을 알게 된다. 그것은 태아의 언제부터를 ‘인간 생명’으로 기준할 것인가에서 시작하여, 이는 여성의 ‘아기를 낳지 않을 수 있는 권리’와는 어떻게 관련되어, 낙태가 성행하는 나라의 정치·경제·사회의 상황은 어떠한가, 이 문제가 존재자로서의 여성, 인간으로서의 여성과 어떻게 깊게 연관되어 있는가 하는 것만 길이다.

그리고 한 필자의 “우주로까지 뻗은 지 오래인 과학의 발달이, 인체에 해롭지 않고 사용하는 데 복잡하지 않으며 효과가 확실한 완전한 피임법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한번쯤 의심해 봐야 하지 않는가”하는 내용에서는, 왜 여성이 아직까지도 마지막 피압박 계층으로 남아 있어야만 하는가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게 만들어 준다.

강혜경

경기도 고양군 벽계읍 관산리 134 윤창APT. 507호

# 곤충의 생리 파헤친 역작

「파브르 곤충기」

우리는 노력이라는 이름의 열차를 타고 여행을 떠난다. 어려선 엄마가 그 열차를 끌고 주고 연료를 넣어준다. 그러나 우리의 키는 너무 작아 내다볼 수 있는 풍경과 하늘이 너무 조금이다. 마음 속으로만 더 푸른 하늘과 넓은 들판을 꿈꾼다. 그리고 우린 몇개의 역을 지나 햇살이 빛나고 신록이 우거진 들판에 다다르면, 신나게 노력이라는 이름의 연료를 넣고 구경을 하며 달려간다. 하지만 어느새 뉘엿뉘엿 해가 저물면, 열차를 폐기처분할 생각만 하며 노력이라는 연료공급을 아까워하고 열차가 정지할 때까지 서서히 속도를 줄여간다.

이렇게 한낮에만 여행을 즐기고 마는 이들에게 파브르는 뉘엿뉘엿 해가 저물기 시작할 때에도 볼거리가 얼마나 많으며, 석양과 어스레한 달빛 가운데 하늘과 땅, 그리고 풀과 벌레는 얼마나 은은하게 아름다운 빛깔과 모습을 보이는가를 관찰해 알려준 곤충학자였다. 파브르는 남아버린 열차에 연료탱크를 아까워하지 않은 특별한 사람이었다. 그는 남들이 들떠서 신록을 구경할 때에도 차분히 연료를 비축했다. 그 결과 57세에 「곤충기」 1권을 세상에 내놓았다. 그러나 더욱 놀라운 사실은 「곤충기」 10권을 내놓은 것은 그의 나이 75세로 첫번째 역에 도착한 지 29년만의 일이었다.

「파브르의 곤충기」는 우리에게 너무 잘 알려진 저서임에도 불구하고, 지리하게만 느껴져 표지만 보거나 펼쳤다가 다시 덮어버렸던 책이다. 하지만 파브르가 그의 위대한 업적에도 불구하고 오십세가 넘도록까지는 평범한 인물 이었고, 저녁열차를 타고 낮익은 농촌을 여행하며 풍경을 바라보고 관찰하고 생각하면서 느낀 수더분한 촌로같은 사람임을 알았을 때 자연스럽게 파브르에 대한 관심은 고조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호기심을 재미있게 해결해주고 있는 책이 「파브르 곤충기」(이평호 옮김, 민서출판사)이다. 전문적이어서 문외한에게 지리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곤충기」전10권 중 흥미롭고 재미있는 부분만을 그림을 곁들여 묶은 책이다.

땅벌의 마취침과 니나니벌과 말벌의 외과수술 솜씨는 인류 의학에 얼마나 많은 공헌을 했을까? 전세계에서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크고 작은 전쟁은 병정개미나 잔인한 살생전문인 딱정벌레같은 사람들이 맡고 있는 일은 아닐까? 치명적인 독거미의 독, 보금자리를 떠나면 바보가 되는 거미, 조각가이자 과학자인 쇠똥구리, 기상대 역할을 하는 매미의 굴과 이슬우화와는 달리 매미에게 구걸하는 개미, 페신을 토해 스스로 만드는 금파리의 요리솜씨, 7개월 동안 자식을 업고다니는 독거미의 모성애, 사춘번식이 목적인 공작나방과 수나방을 부르는 신부의 강한 냄새 등 흥미진진한 내용들이다.

파브르는 일생동안 곤충을 관찰하면서 느낀 결론적 소감을 “자기가 맡은 일에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그 놀라운 본능의 힘, 그것의 발견”이라고 말하고 있다. 관찰과 실험, 그리고 ‘본 것’으로 가득찬 실증적 저서인 「곤충기」를 통해 볼 때, 파브르는 곤충처럼 묵묵히 제 할 일을 다하고 간 성실한 곤충과 같은 존재였는지도 모른다.

강호경

경기도 남양주군 화도면 마석우리 215 삼석중학교·교사

‘글’더 잘쓰기 총서 8



\*'90년도 제1기 청소년 선정도서

## 「글힘돋움」 문제풀이식 문장력기르기

이책의 특징(저자 서문에서)

이 책은 각 절마다 연습과 해설을 통해 간단한 글쓰기의 이론을 터득하게 한 뒤, 보기라는 형식으로 글의 모델을 볼 수 있도록 엮었다.

모두 3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1부에서는 글쓰기의 가장 밑받침이 되는 맞춤법, 띄어쓰기, 원고지사용법 등을 소개했고, 2부에서는 형식과 내용이 조화된 글, 진실한 글, 독창적인 글 등을 실례와 함께 보여준다. 3부에서는 글의 전개에서부터 마지막 다듬기까지 글쓰기의 실재를 설명하고 있다.

글쓰기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나 글쓰기에 막연한 어려움을 느끼는 일반인에게 보다 구체적인 지침서가 될 것이다. 저자: 高廷旭, 2색도 인쇄 신국판, 264쪽 값, 4,500원

이책을 권장도서로 선정한 이유  
청소년 도서선정위원 申相哲

첫째: 중등·대학국어분야 예문 총망라

-내용은 대학교양국어 정도까지 깊이 있게, 설명은 중고등 학생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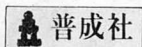
둘째: 글썩에 있어 밑받침이 되는 예문 총망라

-새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등을 잘지켜서 개편된 교과서 내용과 일치

셋째: 좋은 글의 본모기를 총망라.

-솔직하고 진실하면서 독창성과 통일성 있는 글을 독자가 흥미 유발시킬 수 있는 내용

넷째: 글쓰기의 실재를 총망라



서울 마포구 구수동 21-1  
전화: 719-0784

# 이 시대 여성의 방향과 고뇌 그려

## 신달자 소설 「물위를 걷는 여자」

요즘 출판되어 나오는 소설들의 경향은 이 세대가 안고 있는 '삶에 대한 의문'들을 사실적이고도 독특한 공간을 설정하여 묘사하고 있는 점이라 여겨진다.

'백치에인'이란 빼어난 작품으로 우리와 친숙한 신달자 시인의 첫 장편소설인 이 작품은 얼핏보면 이 시대의 여성들이 안고 있는 삶의 방향과 고뇌를 그린 것이라 여겨지지만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우리 젊은 세대 전체가 안고 있는 '가치와 행복'의 문제를 리얼하게 그려낸 보기드문 소설이다.

서점가 베스트셀러 순위에서 여러번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고 막연한 호기심에서 집어든 책이었지만 완독 후의 느낌은 다른 소설들과는 약간 각별한 맛이 있었다.

'난희'라는 주인공을 통해 저자는 이 시대 전체에 흐르고 있는 '고정관념'의 문제들을 여러 곳에서 지적하는데 그것은 대체적으로 이 작품에 나오는 인물들의 '결혼관'이 거의 일치하고 있는 데서 쉽게 드러난다. 결국 '성공=행복'이라는 등식이 그대로 채택되고 있는 것이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난희, 민희, 재민, 백선생 등-은 한결같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어떤 위치에 도달한 인물들이며 세인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는 신분을 소유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들이 반드시 행복과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 여러 곳에서 등장한다. 난희와 민희의 삶은 그런 양상을 대표해주며 이것은 오늘날 젊은 여성들에 있어서는 '양자택일'을 요구하는 사회적 현상이 지배적으로 대두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저자는 '두가지 삶은 조화될 수 없는가?'라는 절실한 물음을 우리에게 던져준다. 이것은 약간의 차이점은

있겠지만 남성들을 포함한 이땅의 젊은세대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라 생각된다.

적어도 '가치와 행복'이 일치하지 않는 수직적이며 성공일변도의 철학이 지배하는 사회풍토가 우리가 느끼는 현실이고 보면, 오늘을 사는 젊은이들-사교가 경직되지 않고 편견에 비교적 덜 물든-에게는 이 두 가지 개념이 공존할 수 없는 게 사실이다. 만약 '양자택일'의 상황에 도달한다면 어떤것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생각해볼 수 있는 여백이 필요하리라 여겨진다.

그런 측면에서 이 작품은 우리 시대의 가치관을 재조명해줌으로써 우리 삶에 대한 깊은 반성과 성찰에의 자세로 우리를 초대하며, 획일화되고 무조건적으로 강요당한 삶에 대한 인식들이 사회적으로 끼치는 반작용들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는 시간을 제공해 준다. 아울러 다양한 형태의 가치관들을 폭넓게 제시함으로써 이 가치관들이 우리세대에서 자리잡아야 할 공간들을 진단해 보고 그 공간들을 선택하는 우리들의 사고가 감안해야 할 요건들을 밝혀주고 있다.

서상우

부산 중구 신창동 2가 26번지 9/3

# 아픔의 원인에 대한 확실한 인식

## 공지영의 「더이상 아름다운 방향은 없다」

「젊은 날의 초상」 「숲속의 방」 그리고 「더이상 아름다운 방향은 없다」로 이어지는 젊은 세대의 표상, 대학생들을 중심 인물로 등장시키는 소설을 '대학소설'이라 이름할 수 있다. 흔히 '젊은 지성의 고뇌와 방향, 선택적 행위'로 주제지워지는 이 소설들은 '발간 즉시 잘 팔리는 소설'이 됨으로써 대학생이라는 소재가 일반대중에게 재미와 감동을 불러 일으키는 멋진 소재임을 입증해 준다. 대학소설이 이렇게 많이 읽히는 이유는 첫째, 모든 인간이 한번씩은 꼭 겪어야 할 20대의 젊은 시절에 대한 추억과 창조적이고 낭만적이라고 알려진 대학생활에 대한 동경, 둘째로는 정치적으로 공포스럽고 암울했던 시대라면 어느때고 현실이라는 절망적 공간에서 온갖 절규와 울음을 터뜨려야 했던 대학생에게 보내는 사회적 관심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원인도 알 수 없는 상처때문에 맹렬하게 고뇌하는 '김형', 목적이 없는 열정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河哥', 있는지 없는지도 알지 못하는 허망한 진리를 찾아 헤매는 '나'라는 세인물을 통해서 70년대 대학의 모습을 조감한 「젊은 날의 초상」은 이 시기가 아직까지는 낭만이 깃든 교정의 풍경을 간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반면, 여류작가에 의해 씌어진 「숲속의 방」은 80년대 초 이분법으로 구별지어진 대학생의 생활양식 속에서 삶의 진실을 찾지 못하고 자살하는 '소양'을 통해 도식적이기는 하지만 동시대적 아픔의 근원을 캐고자 하는 대학생의 방향을 보여준다.

「더 이상...」은 「숲속의 방」에서 찾아낸 아픔의 원인들을 확실히 맥잡고 있다. 광주의 비극으로부터 시작되는 젊은 군상들의 고뇌와 계속되는 억압정치에 대한 분노가 결합되어

젊은이들은 거리로 나선다. '87년의 승리를 체험한 작가 공지영에 의해 씌어진 이 작품은 '민수'와 '지섭'이라는 소위 운동권 학생을 집중적으로 그려냄으로써 민중논리에 한걸음 더 접근하고 있다. 민수는 광주에서 연유된 고뇌와 분노를 이성적으로 깨달아 인식하는 주체적 인물이고 지섭은 광주의 비극으로 인해 누나가 실성하고, 파산한 아버지로 인해 가난의 시련에 직면하고 있는 대상적 인물이다. 결국 민수는 민중적 지식인이고 지섭은 지식인적 민중(지섭이 대학생이긴 하지만 경제적 토대는 민중에 속한다)이다. 그러므로 두 사람의 사랑은 자연스럽고 가치가 있다.

그러나 이 작품은 80년대 중반의 험난했던 대학의 모습을 심도있게 표현하면서 '소중하고도 아픈' 감동을 심어준 반면, 기존의 대학소설이 지니고 있는 오류를 또 다시 드러낸다. 즉, 형식적인 면에서 이 작품도 역시 인물중심의 서술방법에 치중하여 개인의 성격에 의해 운동의 논리가 진행됨으로써 사건의 전개에서 표현되는 상황의 생동감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또한 내용적인 면에서는, 운동을 포기해버린 인경과 덕현에 대한 싸늘한 매도가 자칫 잘못하면 중산계급에 대한 적대감으로 취급될 가능성이 있다. 이 두가지 점은 앞으로의 대학소설에서 심각하게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는 90년대 대학의 땅을 밟고 있다. 지섭의 말대로 "더이상 고뇌하지 않는 떠돌은 그만두어야"한다.

현근식

서울 노원구 상계7동 주공아파트 614-1403 · 학생

## 韓國醫療保險論

文王 繪의 著

전국민의료보험시대를 맞아 의료보험에 대한 이해가 실무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요구되는 현실이다.

한국의 의료보험제도를 포괄적으로 다룬 논저로 제1부는 의료보험 개념에서부터 발전과정과 그 문제를 논하고, 제2부는 의료보험의 구조와 운영실무를 설명, 제3부는 국민의 의료보험 문제와 전망을 제시, 의료보험의 이론과 실무를 체계적으로 다룬 저술서이다. (4·6판/524면/8,500원)

新光出版社

서울 성북구 보문동6가 278-1  
전화 : 925-5052~3 (FAX : 925-5054)

## 카드식 在家中風患者의 再活訓練法

金貞順 李英煥 共譯

中風환자들의 재활훈련을 카드식으로 알기 쉽게 설명한 新書로 교과서적인 틀에서 탈피, 일본서 중풍환자들의 재활사업을 수행하며 축적한 생생한 체험을 토대로 실무자들이 기술하였다.

중풍에 걸리면 백약이 무효라는 비관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훈련에 의한 기능회복을 촉진, 능동적 의지를 유발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배려되었다. (국판/190면/10,000원)

## 단색 스캐너

## 寫眞製版

—전문메이커—

- ◎ 즉석, 포시, 네가가격으로
- ◎ 선명하고 깨끗한 사진 작업
- ◎ 읍셋인쇄. 본문~표지까지

進光文化社

TEL. 265-4726, 266-2091  
주소 : 중구 충무로 5가 2-23

아름다운 책, 읽기 편한 책을 원하십니까.  
「여름새벽」으로 연락하십시오.  
「여름새벽」은 일급쟁이들로 이루어진 창조적 두뇌집단입니다.



◀ 표지디자인 · 본문디자인 · 출판광고디자인 ▶

121-130 서울시 마포구 구수동 21-1 ☎ 718-6260